

## 탕자의 비유 (누가복음 15:11~32)

\*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성경을 잘 읽읍시다!

1. 본문 비유의 \_\_\_\_\_(Context)과 내용 (Content) 을 파악 합니다.

1) 15장 \_\_\_\_\_의 문맥을 살펴봅니다.

① 잃은 양의 비유 (1-7)  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(8-10)    잃은 아들의 비유 (11-32)

(눅 15:12-13)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

(렘 2:13)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

2) \_\_\_\_\_ 구절과 \_\_\_\_\_ 구절의 문맥을 살펴봅니다.

(눅 15:1-3)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.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

(눅 15:11)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

(눅 15:32)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

\* 대상:

\* 주제:

=>

2.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\_\_\_\_\_을 찾아 그 내용을 묵상합니다.

(눅 15:25)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

(눅 15:28)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

\* “권한대” (헬라어: \_\_\_\_\_)

(눅 15:20)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

(눅 15:29-30)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 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

(눅 15:31-32) 아버지가 이르되 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

(눅 15:27)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맏아들이게 됴므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

3. 무엇이 이 비유의 \_\_\_\_\_ 인가요?

- ① 잃어버린 양 (100:1)
- ② 드라크마 (10:1)
- ③ 두 아들 (1:1)

(눅 15:32)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.

(눅 15:24)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.

(욘 4:11)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십이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.

(눅 6:36)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.

\* 탕자의 비유의 결론: \_\_\_\_\_